

##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상황: 대중 인식을 통한 분석\*

서경교\*\* · 고영준\*\*\*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다.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아시아 바로미터 프로젝트에 의해 실시된 1-4차 조사(2001, 2006, 2010, 2014년) 자료들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를 중시하는 태도가 한 예이다. 둘째, 대중의 인식에는 민간정부든 군사정부든 경제적 성장,

\*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대만 교육부, 국립대만대학교, Academia Sinica 등의 재정지원으로 Fu Hu, Yun-han Chu 교수 등에 의해 진행된 아시안 바로미터 프로젝트(Asian Barometer Project: 2001-2014)에 의해 수집된 것임을 밝힌다. 아시안 바로미터 프로젝트 사무실([www.asianbarometer.org](http://www.asianbarometer.org))만이 자료배포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저자는 자료사용을 허락해 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들과 재정지원 기관들에 감사를 전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임을 밝힌다. (Data analyzed in this article were collected by the Asian Barometer Project (2001-2014), which was co-directed by Professors Fu Hu and Yun-han Chu and received major funding support from Taiwan's Ministry of Education, Academia Sinica and National Taiwan University. The Asian Barometer Project Office ([www.asianbarometer.org](http://www.asianbarometer.org))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data distribution. The authors appreciate the assistance in providing data by the institutes and individuals aforementioned.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the authors' own.)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신저자. [kkseo@hufs.ac.kr](mailto:kkseo@hufs.ac.kr)

\*\*\* 호주 시드니대학 정부 및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ykoh5557@uni.sydney.edu.au](mailto:ykoh5557@uni.sydney.edu.au)

빈부격차 해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는 민주적 정부이다. 군사 정부를 민주적 정부로 규정한 응답도 2/3 이상이다. 셋째, 군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군부정권에 대한 대중적 기대도 존재한다. 넷째, 현재의 위기상황은 오랜 동안의 표면적인 민주적 제도와 내용상의 실질적인 권위주의적 통치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 뿌라웃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주제어:** 태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 대중 인식,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

## I. 문제제기

2020년 현재 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sup>1)</sup>. 태국은 1932년 군부 쿠데타로 인해 절대왕정이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이후 1980년대까지 오랜 기간 군부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하였다. 1992년 5월 민주화 시위의 결과로서 1997년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인 “국민의 헌법”이 제정되어 이후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을 경험하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2001년 총선에서 승리한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과 탁싌(Thaksin Shinawatra)은 태국 정치사에서 헌법에 보장된 4년의 내각 임기를 채운 최초의 집권당과 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더욱이 2005년 총선에서 의회 의석의 3/4을 획득할 만큼 광범위한 유권자의 확고한 지지에 힘입어 4년 더 권력을 연장하게 되어 태국 민주화 이행의 긍정적 성과로 여겨졌다(이동윤 2005: 288-289; 서경교 2007: 270).

하지만 2006년 태국 민주주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1) 2020년 7월 이후 태국에서는 반정부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탁싌 전총리가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지 14년이 되는 9월 19일에는 방콕에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인 오만명 이상이 모인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반정부 시위와 함께 군주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부각되고 있다(연합뉴스 2020/9/19).

탁썬 총리 일가가 소유한 기업 주식을 해외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세금비리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회적 공분은 탁썬의 퇴진 운동으로 표출되었다.<sup>2)</sup> 정치사회적 혼란 중에 2006년 9월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였고 국왕의 승인을 얻은 쿠데타가 성공함으로써 탁썬은 권좌에서 축출되어 해외를 떠돌게 되었다(Ockey 2007: 133-140; 서경교 2007: 262-273). 이후 태국사회에서 친탁썬 대 반탁썬 세력간의 대립은 격화되어 폭력적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6년 쿠데타 이후 새로 제정한 헌법에 따라 2007년과 2011년 총선이 실시되었지만 국론분열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국왕 및 군부를 포함한 전통적 엘리트들은 반탁썬 진영의 중심이 된 반면, 동북부 지역의 노동자, 농민 등의 빈곤계층을 주축으로 한 유권자들은 친탁썬 세력을 이루었다. 쿠데타 이후 두 번의 총선 결과는 친탁썬 세력의 승리로 나타났지만, 2011년 총선 후 집권한 잉락 쫓나왓(Yingluck Shinawatra)정부가 탁썬의 귀국을 추진하면서 군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이동운 2014: 355; 서경교 2015: 271).

2014년 5월 사회적 혼란을 빌미로 군부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정부를 붕괴시키고 권력을 장악했다(Prasirtsuk 2015: 202-205). 그러나 2006년 쿠데타 때와는 달리 2014년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약속한 민정이양을 계속 미루며 친탁썬 세력의 재집권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며<sup>3)</sup>, 군부가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였다. 특히 2017년 공포된 헌법에는 군부에 의한 상원의원 임명, 하원과 상원이 함께 총리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총선 이후에도 5년간 군부가 공식

2) 물론 이외에도 탁썬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Freedman(2007), 서경교(2007, 2015), 이병도(2009), 이동운(2010) 참조.

3) 2017년 2월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총선은 2016년 10월 푸미폰 국왕의 서거로 1년 후인 장래 이후로 자동 연기되었고, 이후로도 여러 핑계들을 이유로 2019년 3월에서야 실시되었다.

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 등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장치들이 헌법상 명문화되었다(Merieau 2019: 330; Sawasdee 2020: 55).

2019년 총선 실시 전 친탁썬 세력의 재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러 장치들과 함께 군부에 의해 주도된 3월 총선의 결과 빠라웃 짠오차(Prayut Chan-o-cha)가 총리로 재집권하였다. 이는 2014년 쿠데타를 주도한 빠라웃의 권력연장이지만 총선 결과에 의한 재집권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학자들은 2019년 총선 이후 태국정부를 민주적 정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군부가 주도한 인위적 장치들에 기초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군부정권으로 평가한다(Sawasdee 2020: 53). 즉 1992년 민주화 위기 이후 순탄한 민주화 이행과정을 진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태국의 민주주의가 2014년 쿠데타 이후로는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록 2019년 3월 총선이 실시되고 이후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빠라웃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태국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태국의 민주주의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2001년 이후 있었던 다섯 번의 총선(2001, 2005, 2007, 2011, 2019년)에서 탁썬계 정당이 지속적으로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태국 대중들은 왜 탁썬계 정당을 계속 지지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14년의 쿠데타에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태국 대중들이 이해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태국 대중들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신도철은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기초로 한 46개국 대상 연구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대중들의 대다수가 민주적 체제의 핵심

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확립하려면 대중들이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형태라는 명확한 확신과 함께 비민주적 체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hin 2012a: 104-105). 민주화 이행과정에 있는 국가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유권자 대중들의 자유민주주의 가치<sup>4)</sup>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즉 민주적 제도와 절차는 외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그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는 엘리트와 대중들의 민주적 가치관과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Shin 2012b: 267). 본 연구도 이러한 인식의 공유에서 출발하였다.

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자들의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Asian Barometer Survey(이하 ABS) 조사 자료를 활용한 태국 민주주의 연구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1-3차 조사 결과 중 부분적인 자료들을 활용한 연구들이다. ABS 1차 자료에서 태국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다룬 연구(Albritton et al. 2008), 1-2차 조사 자료를 기초로 아시아 6개국(한국, 일본, 대만, 몽골, 태국, 필리핀)에서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비교한 연구(Chang et al. 2008), 2-3차 조사 자료에서 태국을 포함한 ABS 조사 대상 13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인도의 경우와 비교한 연구(Huang et al. 2013) 등이 국외 기존연구들이다. 국내에서는 1-3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태국 대중들의 민주

4)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기초하여 다음 네 가지를 기본적 가치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소수의 권리 보호를 전제한 다수에 의한 통치,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 보장, 자유롭고 비폭력적인 정기적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군부에 대한 민간인 우위의 원칙 등이다(Roberts 1971: 61; Plano et al. 1973: 109-110; Sartori 1987: 7). 이 밖에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강조된다.

주의 관련 인식을 다룬 연구(서경교 2013; 고영준 2013) 및 태국과 필리핀의 비교연구(서경교 2014b), 그리고 3차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의 민주화 이행 비교연구(서경교 2014a)와 동남아시아 7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대중들의 민주주의 인식 비교연구(서경교 2016) 등이 있다. 이들 민주주의 관련 대중의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연속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아닌 매 조사별 자료들을 기초로 분석하거나, 1-3차까지의 시계열 자료들을 활용한 경우에도 대중적 인식의 단면이나 그 특징들에 대하여 빈도분석 결과를 단순히 설명하는데 그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2001-2014년 기간 네 차례 조사 결과가 축적된 ABS 1-4차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를 통하여 대중적 인식의 변화 또는 지속성의 추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설문으로 4~5년 시차를 두고 네 차례 실시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중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들이 어떠한 특징과 양상을 보이는지, 그러한 대중적 인식의 추이가 태국 민주주의의 진행과정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중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태국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던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ABS에서 실시한 네 차례의 설문조사<sup>5)</sup> 결

5) ABS의 설문조사는 1차(2001년 10-11월), 2차(2006년 4-9월), 3차(2010년 8-12월), 4차(2014년 8-10월)에 걸쳐 태국 유권자 1,546명(1차), 1,546명(2차), 1,512명(3차), 1,200명(4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2차 설문조사의 표본설계는 two-stage cluster sampling과 systematic sampling으로 이루어졌고, 3-4차 조사에서는 multi-stage systematic random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원들이 설문 참여자들을 직접 찾아가 설문지 질문에 대해 일대일 인터뷰(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과이다. <표 1>에서 보듯이 1차(2001년), 2차(2006년), 3차(2010년), 4차(2014년)에 걸쳐 조사되었고,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들의 다양성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를 원자료 형태로 제공받아 본 연구에 필요한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2장에서는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들의 특징과 양상이 ABS 조사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태국 정치체제 및 정부, 정치제도, 정당 등 전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선 논의와 분석에 기초하여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그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표 1> 태국에서의 ABS 조사: 조사시기, 표본 수, 집권정부(정당)

조사시기	표본 수	조사시기 집권정부 (정당)
1차 조사 (2001년 10~11월)	1,546명	탁싌 내각 (타이락타이당)
2차 조사 (2006년 4~9월)	1,546명	탁싌 내각 (타이락타이당)
3차 조사 (2010년 8~12월)	1,512명	아피싯 내각 (민주당)
4차 조사 (2014년 8~10월)	1,200명	쁘라윛 내각 (군부정권)

\* 출처: ABS 1-4차 조사자료.

## II.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 특징과 양상

본 장에서는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인식들이 어떤 특징과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ABS 1-4차 조사결과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태국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정치참여 관련 인식들(투표, 정치적 관심과 영향력, 정치활동 등)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도, 선호도, 정통성 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고찰할 것이다.

### 1.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태국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표 2>의 3-4차 조사내용<sup>6)</sup>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관식으로 민주주의 개념을 답하도록 한 1-2차 조사에서 응답률은 50.0% 미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답변도 천차만별이라 분류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가장 유사한 개념군으로 분류한 1-2차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면 응답자들이 제시한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와 권리, 평등, 참여, 다수결 정도의 순서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로 인하여 3차 조사부터는 질문의 방식을 바꾸어 실시되었다. <표 2>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필수요소를 제시한 네 개의 그룹에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기록한 각각의 항목들은 정부에 의한 빈부격차 해소(I), 정부가 제공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II), 정부의 고용기회 보장(III),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은 정치(IV) 등이다. 3차 조사에서는 전체 16개 항목 중 정부가 제공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42.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4차 조사에서는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은 정치(48.1%)가 가장 응답률이 높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로 나타났다. I-III 그룹의 최다응답 항목들인 정부에 의한 빈부격차 해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고용기회의 보장 등은 공통적으로 정치 영역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로 분석된다. 따라서 3-4차 조사에서 태국 대중들에게 민주주의 개념

---

6)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ABS 1-2차 조사에서는 주관식 문항으로 세 가지까지 답하게 하였던 반면, 3-4차 조사에서는 방식을 바꾸어 민주주의 요소를 네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각 네 개의 민주주의 필수요소 보기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나 평등, 선거, 권력견제 등이 아닌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중 유일한 정치관련 개념이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은 정치”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정치 영역보다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3·4차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3>은 대중들의 민주주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태국 민주주의의 정도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방식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만족도는 각각 탁썬 정부 출범 첫 해인 2001년에는 90.5%였고, 탁썬 퇴진운동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던 2006년에는 79.7%, 민주당의 아피싯(Abhisit Vejjajiva) 정부 집권기였던 2010년에는 78.6%, 그리고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빠라웃 군사정부에서는 72.5%였다. 네 차례의 조사 중 대중들의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2001년 1차 조사에서 가장 높았고, 2차 조사에서 10.0% 이상 감소한 후 소폭이지만 감소추세이다. 즉 대중들의 민주주의 실시방식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자의 70.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군사정부 집권 후인 4차 조사에서 72.5%가 민주주의 운영방식에 만족한다는 답을 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군사정부에 의한 통치도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lt;표 2&gt; 민주주의 필수요소 (%)

* 질문: “다음의 진술 가운데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느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필수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3차 조사 (2010년)	4차 조사 (2014년)	평균
<b>*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I</b>			
1.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인다.	<b>28.6</b>	24.2	<b>26.4</b>
2. 국민이 자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지도자를 뽑는다.	17.5	<b>28.8</b>	23.2
3.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22.9	20.8	21.9
4. 국민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23.8	14.8	19.3
<b>*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II</b>			
1.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한다.	14.0	20.1	17.1
2. 의식주 등 기본생활요소가 모두 제공된다.	31.5	28.7	30.1
3. 국민이 정치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5.2	9.5	7.4
4. 정부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b>42.7</b>	<b>29.2</b>	<b>36.0</b>
<b>*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III</b>			
1. 정부가 법과 질서를 보장한다.	17.3	24.2	20.8
2. 언론매체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12.1	22.3	17.2
3. 정부가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한다.	<b>39.3</b>	<b>27.4</b>	<b>33.4</b>
4. 복수의 정당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21.9	11.2	16.6
<b>*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IV</b>			
1. 국민의 항의와 시위에 참여할 자유를 갖는다.	7.6	11.7	9.7
2. 정치가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다.	<b>38.5</b>	<b>48.1</b>	<b>43.3</b>
3. 법원이 정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한다.	9.7	11.0	10.4
4. 실업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35.6	15.6	25.6

\*출처: ABS 3차(85-88번 문항), 4차(88-91번 문항) 자료.

&lt;표 3&gt;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

구분	1차 조사 (2001년)	2차 조사 (2006년)	3차 조사 (2010년)	4차 조사 (2014년)	평균
<b>(1)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b>					
* 만족함.	<b>90.5</b>	<b>79.7</b>	<b>78.6</b>	<b>72.5</b>	80.3
<b>(2) 민주주의의 정도</b>					
* 완전한 민주주의	자료없음.	<b>16.9</b>	10.8	<b>13.0</b>	13.6
* 작은 문제 있는 민주주의		<b>61.8</b>	<b>55.0</b>	<b>49.7</b>	<b>55.5</b>
* 큰 문제 있는 민주주의		14.8	25.7	26.2	22.2
* 민주주의가 아니다.		<b>2.3</b>	3.9	<b>2.5</b>	2.9

\*출처: ABS 1차(98번 문항), 2차(93, 94번 문항), 3차(89, 90번 문항), 4차(92, 93번 문항) 자료.

\*질문: (1) 민주주의의 운영방식: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2) 민주주의의 정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태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묻는 질문<sup>7)</sup>에서 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거나 크거나 작은 문제가 있는 민주주의라고 응답한 <표 3>의 세 항목을 더한 비율은 2차(93.5%), 3차(91.5%), 4차(88.9%)였다. 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답변은 2차(2.3%), 3차(3.9%), 4차(2.5%)로 모두 4.0% 이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4년 쿠데타 이후 뿌라웃 군사정부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응답자 중 88.9%가 뿌라웃 정부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민주주의라고 규정하였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2005년 총선에서 하원 의석의 3/4 이상을 차지하였던 탁싨 정부에 대하여 93.5%가 민주주의라고 하였고, 2.3%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답한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의미 있는 차이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태국 대중들에게는 선거라는 절차에서 다수의 지지를 통해 정부를 구성했든 또는 쿠데타를 통해 무력으로 군사정부를 출범했든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으며, 두 정부를 모두 민주적인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이다. 더욱이 4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13.0%는 군사정부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하고 있다. <표 3>의 내용을 요약하면,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 운영 방식 및 민주주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군사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단지 민주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만 군사정부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한 정도이며, 2차 및 3차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그 차이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보면 태국 대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적 관점 또는 정치학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과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 인식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표 2>의 민주주의 필수요소에 대한 태국 대중들의 인

7) 1차 조사에서는 이 항목의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음을 밝힌다.

식 결과에 기초해 본다면 경제영역에서 대중이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족하는 정부라면 군사정부라 하더라도 민주적 정부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2. 정치참여 관련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은 정치참여와 관련된 인식들이다. <표 4>에서는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하원의원 선거 투표 여부, 응답자의 정치적 관심,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치 활동 경험 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볼 수 있다. 먼저 ABS 조사 직전에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 투표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표 4>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평균 90.9%가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 탁썬과 타이락타이당의 집권을 가져온 2001년 총선이 대상이었던 1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투표참여율(96.4%)이 가장 높았다. 탁썬의 집권 연장을 가져왔던 2005년 2월 총선에서 응답자들의 투표참여율은 1차 조사 때와 비교하여 10.0% 가까이 하락(87.5%)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쿠데타로 탁썬이 실각한 후 실시되었던 두 번의 총선(2007/12월, 2011/7월)을 대상으로 한 3, 4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투표율은 91.1%와 88.7%로 나타났다. 두 번의 총선 모두 친탁썬계 정당이 승리한 선거였다. 따라서 1-4차 조사에서 나타난 높은 투표 참여율과 탁썬 및 탁썬계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두 번째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관심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75.2->72.4->69.9->65.5%로 조사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인 민주주의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하락하

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1-4차 조사결과는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응답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율 사이에 최저 15.1%(2차 조사)에서 최대 23.2%(4차 조사)까지 평균적으로 20.1%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격차는 투표에는 참여하였으나 정치적 관심은 없는 응답자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구분	1차 조사 (2001년)	2차 조사 (2006년)	3차 조사 (2010년)	4차 조사 (2014년)	평균
<b>1. 투표참여율</b> (총선 투표함)	<b>96.4</b>	<b>87.5</b>	<b>91.1</b>	<b>88.7</b>	90.9
<b>2. 정치적 관심</b> 정치에 관심 있음.	<b>75.2</b>	<b>72.4</b>	<b>69.9</b>	<b>65.5</b>	70.8
<b>3. 정치적 영향력</b>					
(1) 정치적 참여 능력 있음.	85.0	75.7	65.3	59.6	71.4
(2) 정부에 대한 영향력 없음.	57.5	자료 없음.	66.7	56.8	60.3
(3) 국가에 대해 절대 지지함.	자료 없음.	<b>87.4</b>	<b>92.9</b>	<b>80.1</b>	<b>86.8</b>
<b>4. 정치활동</b>					
(1) 연설회나 지지 대회 참석.	51.6	23.7	49.7	39.2	<b>41.1</b>
(2) 후보나 정당 지지 권유함.	31.3	19.7	21.8	17.4	<b>22.6</b>
(3) 후보나 정당 위해 활동함.	<b>3.5</b>	<b>5.1</b>	11.1	<b>8.5</b>	<b>7.1</b>

\*출처: ABS 1차(27, 29-31, 56, 126, 129번 문항), 2차(38, 40-42, 49, 127, 154번 문항), 3차(32, 34-36, 43, 133, 135, 137번 문항), 4차(33, 35-37, 44, 134, 136, 138번 문항) 자료.

**\*질문:**

1. **투표참여:** “가장 최근의 하원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
2. **정치적 관심:**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3. **정치적 영향력:** (1) “나는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 “시민은 국가가 완벽하지 않거나 잘못했다라도 항상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정치활동:** (1) “후보자 연설회나 지지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2)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3) “특정 후보나 정당을 돕기 위한 다른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겠다. “나는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5.0→75.7→65.3→59.6%의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정치적 관심도의 하향 추세와 유사하지만 하락폭은 더 크다. 흥미로운 사실은 1-2차 조사에서는 정치참여 능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정치적 관심도보다 높은 반면 3-4차 조사에서는 역전되어 더 낮아졌다는 점이다. 정치적 영향력 관련 질문에서 가장 놀라운 통계수치는 2차 조사에서 추가된 “시민은 국가가 완벽하지 않거나 잘못했다라도 항상 지지해야 한다”에 동의한 응답률이 <표 4>에서 보듯이 평균 86.8%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2-4차 조사 모두에서 국가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 동의한 비율은 스스로 정치적 참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나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정치적 관심이 없거나 정치참여 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국가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그 차이만큼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태국 대중들의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의 성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의 아피싯 정부 하에서 실시된 2010년의 3차 조사에서 92.9%의 높은 동의율이 나온 결과도 정치권력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가 태국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희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정치활동 경험에 대한 답변들이다. 후보자 연설회나 지지 대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평균 41.1%의 응답자들이 있다고 답했다. 1차 조사에서만 50.0%를 넘었고, 4차 조사에서는 39.2%만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권유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저히 더 낮은 응답률이 나왔다. 평균 22.6%만이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2차와 4차 조사에서는 채 20.0%가 되지 않았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돕기 위한

다른 활동을 하였느냐는 질문에는 3차 조사(11.1%)를 제외하고는 10.0%를 넘지 못하는 비율로 나타나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응답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후보 연설회나 지지 대회에 참석하는 비율만 40.0% 정도이며, 그 외의 더 적극적인 정치활동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태국 정치과정에서 유권자 수준의 참여는 미약하다고 분석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두 번째의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과 비교해보면 정치적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연설회나 지지 대회 또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 3.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만족도, 선호도, 정통성

앞서 살펴본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관한 인식에 이어 <표 5>에서는 민주주의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태국에 민주주의 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어느 정부형태를 선호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민주적 정통성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90.8%(1차)에서 57.3%(4차)까지의 응답 편차를 보였다. 1차 조사에서는 90.0% 이상이 민주주의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에 긍정적이었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66.2%까지 하락하였고 3차 조사(2010년)에서 74.5%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2014년에는 57.3%로 추락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태국 응답자들이 1차 조사(2001년)에서 보였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추세였고 4차 조사(2014년)에서는 무려 30.0%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큰 폭의 하락은 2014년 5월의 쿠데타로 잉락정부가 붕괴되고 군부정권이 등장한 것에 대한 응답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대중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표 5>의 민주주의 선호도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태국 실정에 적합한지의 질문에 대해 태국에 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부적합하다는 1에서부터 완전히 적합하다는 10사이의 숫자로 응답하게 한 결과이다. 네 차례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10(완전 적합)이라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그 비율은 51.1 → 30.8 → 42.0 → 21.4%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태국의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적합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의 비율이 최대 51.0% 정도였으며,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에는 불과 21.4%만이 완전 적합으로 응답해 1차 조사보다 1/2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 의미는 태국에 민주주의 체제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중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대중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인 1~4 사이의 응답자는 매우 미미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민주주의 체제가 태국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정부형태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선택하게 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듯이 권위주의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응답비율은 감소(84.3 → 72.7 → 68.2 → 50.8%) 추세인 반면, 권위주의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계속 증가(10.6 → 13.2 → 13.7 → 26.2%) 추세이다. 이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선택에서는 표에서 보듯이 네 차례 조사 모두에서 경제발전이

<표 5>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선호도, 정통성 검토(%)

구분		1차 (2001년)	2차 (2006년)	3차 (2010년)	4차 (2014년)	평균
<b>1. 만족도</b> : 민주주의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b>90.8</b>	<b>66.2</b>	<b>74.5</b>	<b>57.3</b>	72.2
<b>2. 민주주의 선호도</b>						
(1) 민주체제 적합성	1 (완전 부적합)	0.6	0.4	0.7	1.2	0.7
	2	0.8	0.2	0.3	0.7	0.5
	3	0.3	1.1	1.5	2.1	1.3
	4	0.6	0.8	1.7	1.9	1.3
	5	4.2	5.0	10.5	6.5	6.6
	6	3.8	5.2	9.9	6.9	6.5
	7	8.5	10.2	12.8	10.4	10.5
	8	15.8	21.7	11.8	15.2	16.1
	9	14.3	14.6	8.9	12.3	12.5
	10 (완전 적합)	<b>51.1</b>	<b>30.8</b>	<b>42.0</b>	<b>21.4</b>	36.3
(2)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민주주의 선호	<b>84.3</b>	<b>72.7</b>	<b>68.2</b>	<b>50.8</b>	69.0
	권위주의 선호	<b>10.6</b>	<b>13.2</b>	<b>13.7</b>	<b>26.2</b>	16.0
	상관없음	5.1	2.9	6.2	7.7	5.5
(3) 민주주의 vs 경제발전	경제발전 중요	<b>49.2</b>	<b>42.0</b>	<b>48.6</b>	<b>53.4</b>	<b>48.3</b>
	민주주의 중요	<b>16.7</b>	<b>20.5</b>	<b>19.8</b>	<b>28.1</b>	<b>20.3</b>
	똑같이 중요	34.1	27.4	25.3	5.8	23.2
<b>3. 민주주의 정통성</b>						
(1) 강력한 정치지도자 지지		22.4	21.8	22.6	33.3	25.0
(2) 일당체제 지지		37.0	17.7	17.7	30.9	25.8
(3) 군부통치 지지		18.9	19.7	20.2	47.9	26.7
(4) 국가의 법 위반 용인		<b>50.2</b>	<b>49.3</b>	<b>50.4</b>	<b>51.6</b>	<b>50.4</b>

\*출처: ABS 1차 (103, 117-119, 121-123, 125번 문항), 2차 (98, 121-126, 141번 문항), 3차 (94, 124-126, 129-131, 148번 문항), 4차 (97, 125-127, 130-132, 149번 문항) 자료.

**\*질문:**

1. **만족도**: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선호도**: (1) “민주주의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다음 견해 중 응답자님 생각은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3)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정통성**:

(1) “국회와 선거를 없애고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하나의 정당만 선거에 나오고 국정을 맡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3) “군대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4)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을 위반할 수 있기에 동의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월등히 앞섰다. 이처럼 정부형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경제발전(49.2 → 42.0 → 48.6 → 53.4%)이 민주주의(16.7 → 20.5 → 19.8 → 28.1%)보다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계속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태국 대중들의 인식이 민주주의의 확고한 기초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종합하면, 태국 대중들은 경제발전 → 민주주의 → 권위주의 순으로 선호하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겠다.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관련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도 <표 5>에서 볼 수 있다. 네 가지 항목 중 ‘강력한 정치지도자 지지’, ‘일당 체제 지지’, ‘군부통치 지지’ 등 앞의 세 가지에 동의한 비율은 평균 30.0% 미만인 반면, 네 번째의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평균 50.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 중 군부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계속 20.0% 내외에 머물렀다가 2014년 4차 조사에서 47.9%로 치솟았다. 군부통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단순히 뿌라웃 군사정부하의 조사여서인지, 아니면 군사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상승한 것인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가 상황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50.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의 법 위반에 동의하는 비율은 앞서 살펴본 <표 4>의 정치적 영향력 중 국가에 대한 절대적 지지의 비율보다는 평균 30.0% 이상 낮지만, 민주적 국가 대중들의 인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상의 민주주의 정통성 관련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응답자가 평균 50.4%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군부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2014년 조사에서만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4차 조사가 2014년 5월의 쿠데타 발생 이후 군부정권하에서 실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Ⅲ. 정치체제와 정부 관련 대중적 인식

이어서 본 장에서는 대중의 정치체제 관련 인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ABS 조사 자료들을 통해 대중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정부에 대한 평가,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당 지지 및 정당 친밀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 1. 정치체제와 정부에 대한 인식

대중들이 태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체제 관련 질문들은 새로 추가된 항목이어서 3-4차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자료로 살펴보겠다. 3차 조사가 진행된 2010년 8~12월은 민주당의 아피싯 정부였고, 4차 조사 기간인 2014년 8~10월은 5월에 발생한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 하에서 진행되었다. 조사 시점에서 (1) 정치체제의 문제해결 능력, (2) 정치체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여부, (3)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 (4) 정치체제 선호도, (5) 정치체제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현 정치체제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각각 80.0%와 77.7%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4차에서 약간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 정치체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도 82.9%와 79.0%로 3.9% 정도 하락하였다. 세 번째의 정치체제 지지도와 관련하여서는 3차와 4차 조사에서 각각 89.3%와 84.3%의 응답자가 현 정치체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하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정치체제 지지율이 3차 조사보다 5.0%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84.3%의 응답자가 쿠데타 이후 군부가 집권한 정치체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네 번째 정치체제 선호도와 관련하여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현재 정치체제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자는 각각 87.4%와 81.4%로 이 역시 6.3%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치체제와 비교하여 현재 정치체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의 네 항목에 대한 응답율과 비교해 20.0% 가까이 낮은 65.2%와 66.7%가 정치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6> 현재 정치체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

구분	1차 조사 (2001년)	2차 조사 (2006년)	3차 조사 (2010년)	4차 조사 (2014년)	평균
(1) 정치체제의 문제해결 능력			<b>80.0</b>	<b>77.7</b>	78.9
(2) 정치체제가 자랑스러움			<b>82.9</b>	<b>79.0</b>	81.0
(3) 정치체제 지지도			<b>89.3</b>	<b>84.3</b>	86.8
(4) 정치체제 선호도	자료 없음.	자료 없음.	<b>87.4</b>	<b>81.4</b>	84.4
(5) 정치체제 변화 필요성: * 정치체제 변화 필요함.			<b>65.2</b>	<b>66.7</b>	66.0
* 정치체제 변화 필요 없음.			27.3	18.2	22.8
* 다른 정치체제로 대체 필요함.			<b>2.3</b>	<b>6.2</b>	4.3

\* 출처: ABS 3차(80-84번 문항), 4차(83-87번 문항) 자료.

\* 질문:

- (1) “길게 보면 우리 정치체제는 국가 당면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전반적으로 정치체제가 자랑스럽습니까?”
- (3) “우리 정치체제는 문제가 생긴다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 “나는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우리 정치체제하에 살고 싶습니까?”
- (5) “다른 정치체제와 비교할 때 우리 정치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 없는지, 혹은 작은 변화가 필요한지, 큰 변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정치체제로 대체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태국 대중들의 정

치체제에 대한 인식이 현실의 정치체제 유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표 6>의 다섯 가지 질문을 포함한 ABS 조사가 2014년 군부 쿠데타 이전인 2010년(8-12월)과 쿠데타 이후인 2014년(8-10월) 각각 시행되었지만, 정치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두 번의 조사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응답자들이 아피싯 정부하의 정치체제와 빠라웃 군사정부하의 정치체제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도 65.2%와 66.7%로 불과 1.5% 차이가 날 뿐이었고, 다른 정치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2.3%와 6.2%로 군사정부 하에서 더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미미한 차이일 뿐이다. 이는 응답자 중 쿠데타 이후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체제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00명 중 6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3차 조사 때 아피싯 정부에서의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보다 4차 빠라웃 정부에서의 평가가 약간 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 정치체제 관련한 태국 대중들의 이러한 인식은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앞서 확인한 정치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이어서 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 정부의 중요 과제에 대한 인식 및 과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다. <표 7>에서 현 정부는 탁싯 정부(1-2차 조사), 아피싯 정부(3차 조사), 빠라웃 군사정부(4차 조사)이다. 태국 대중들이 정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현재 정부가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과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 7>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탁싯 정부 출범 첫 해인 2001년에는 응답자의 89.5%가 정부에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2006년에는 75.2%였고 2010년에는 64.3%로 연속 감소

하여 1차와 비교하여 3차 조사에서는 무려 25.2%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2014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서 다시 80.6%의 응답자가 정부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1차 조사 결과보다는 낮지만 2차와 3차 조사보다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현정부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 과제 (%)

구분	1차 조사 (2001년)	2차 조사 (2006년)	3차 조사 (2010년)	4차 조사 (2014년)	평균
(1) 정부에 대한 만족도	<b>89.5</b>	<b>75.2</b>	<b>64.3</b>	<b>80.6</b>	77.4
(2) 정부의 가장 중요 과제: * 경제관리 및 경제발전 * 빈곤 * 경제관리	자료 없음.	28.5	17.0	28.3	
(3) 중요 과제 해결 가능성 * 있다 * 없다	자료 없음.	<b>58.6</b> 22.4	<b>38.8</b> 42.3	<b>70.5</b> <b>18.0</b>	56.0 27.6

\*출처: ABS 1차(104번 문항), 2차(99, 100, 102a번 문항), 3차(95-97번 문항), 4차(98-100번 문항) 자료.

\*질문:

- (1) “정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 (2)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정부가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2)의 문제를 정부가 5년 이내에 해결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한 답변은 2차 조사에서는 ‘경제관리 및 경제발전’(28.5%), 3차에서는 ‘빈곤’(17.0%), 4차에서는 ‘경제관리’(28.3%)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향후 5년 이내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각각 28.5%와 28.3%의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를 경제관리라고 응답한 2차와 4차 조사에서는 58.6%(2차)와 70.5%(4차)가 5년 이내에 경제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빈곤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3차 조사에서는 38.8%만이 5년 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유사한 과제의 해결 가능성에서 군사정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점은 매우 특이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탁썬 정부 2기였던 2006년과 군사정부 출발 직후인 2014년에 각각의 정부가 직면한 ‘경제관리’라는 중요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태국 대중들의 응답은 오히려 2014년 군사정부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적으로 대중들의 군사정부에 대한 신뢰 또는 지지의 태도와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요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 전망에서도 군사정부가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서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대중적 인식은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 국가수준과 가정경제 수준에서 대중들의 현재 경제 상황,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 사정 변화, 그리고 향후 경제 상황 전망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와 “나쁘다”라고 답한 비율은 <표 8>에서 보듯이 각각 1차(14.3%, 39.3%), 2차(30.0%, 29.5%), 3차(15.9%, 36.4%), 4차(26.9%, 27.6%)이다. 네 차례 중 당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2001년 1차 조사이다. 국가 경제가 “좋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14.3%인 반면, “나쁘다”는 39.3%로 가장 높았다.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이 역시 네 차례 중 가장 높은 54.8%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가 아직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8&gt; 정부의 경제적 성과 평가 (%)

구분		국가 수준			가계 수준		
		현재 경제 상황(1)	경제 상황 변화(2)	경제 상황 전망(3)	현재 경제 상황(1)	경제 상황 변화(2)	경제 상황 전망(3)
1차 조사 (2001년)	답변①	<b>14.3</b>	38.7	<b>13.3</b>	<b>9.5</b>	32.1	<b>9.5</b>
	답변②	46.5	22.7	<u>32.0</u>	65.5	30.2	37.5
	답변③	<b>39.3</b>	38.6	<b>54.8</b>	<b>25.0</b>	37.7	53.1
2차 조사 (2006년)	답변①	<b>30.0</b>	<b>57.6</b>	<b>37.2</b>	18.1	<b>49.0</b>	<b>45.9</b>
	답변②	38.0	21.3	19.0	66.0	33.6	20.1
	답변③	<b>29.5</b>	18.4	12.3	15.4	16.3	6.0
3차 조사 (2010년)	답변①	<b>15.9</b>	43.5	<b>40.6</b>	18.6	38.7	<b>48.1</b>
	답변②	46.3	28.1	19.2	64.2	40.0	21.9
	답변③	<b>36.4</b>	26.0	13.2	16.4	19.5	6.6
4차 조사 (2014년)	답변①	<b>26.9</b>	36.6	<b>68.6</b>	21.2	37.2	<b>66.6</b>
	답변②	44.6	35.8	17.4	62.5	47.2	22.1
	답변③	<b>27.6</b>	26.1	4.5	15.3	14.4	3.1

\*출처: ABS 1-4차 조사자료(1-6번 문항) 자료.

\*질문: <국가 수준>

- (1) 현재 경제상황: “요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2) 경제상황 변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경제상황 전망: “앞으로 몇 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가계 수준>

- (1) 현재 경제상황: “택의 경제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2) 경제상황 변화: “몇 년 전과 비교해 택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경제상황 전망: “앞으로 몇 년 후 택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대한 설명: <국가와 가계수준>

- (1) 현재 경제 상황(답변): ①(매우)좋다. ②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③(매우)나쁘다.
- (2) 경제 상황 변화(답변): ①(훨씬, 약간)좋아졌다. ② 비슷하다. ③(훨씬, 약간)나빠졌다.
- (3) 경제 상황 전망(답변): ①(훨씬, 약간)좋아질 것이다 ②비슷할 것이다. ③(훨씬, 약간)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2차 조사의 결과로 2006년 택션 집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 경제가 좋다는 응답이 네 차례 조사 중 가장 높은 30.0%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상황

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2차 조사에서 57.6%로 가장 높았다. 대중들의 이러한 평가는 탁싰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며, 실제로 대중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성과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태국 대중들이 탁싰 집권 시기(2001-2006년)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앞의 <표 2>에서 살펴본 태국 대중들의 인식 속에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넷 중 셋이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기능과 관련되었던 조사 결과와 연결하여 보면 대중들에게 경제적 성과가 가장 돋보였던 탁싰 집권기가 그들에게는 가장 민주적인 정부가 집권했던 시기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앞으로 몇 년 후 국가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13.3→37.2→40.6→68.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4년 군사정부하의 4차 조사에서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한 가장 높은(68.6%) 긍정적 전망이 나온 것은 군사정부에 대한 기대감인지 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인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sup>8)</sup>.

가계 수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표 8>에서 보듯이 네 차례 조사에서 가정경제 상황이 가장 나쁘다는 응답 역시 2001년 1차 조사로 가정경제가 좋다는 응답이 9.5%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나쁘다는 응답은 25.0%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 몇 년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도 1차 조사에서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국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몇 년간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변화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

8)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조사는 완료된 그러나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태국의 ABS 5차 조사 데이터가 공개되면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패턴 역시 국가수준과 유사하다. 즉 가정경제가 지난 몇 년간 좋아졌다는 응답은 2차 조사인 2006년이 49.0%로 30.0%대에 머물러 있는 다른 조사 결과들보다 더 높다. 향후 몇 년간의 가정 경제 전망에 대한 응답에서도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9.5 → 45.9 → 48.1 → 66.6%로 상승세이고, “나빠질 것이다”는 답은 53.1 → 6.0 → 6.6 → 3.1%로 1차 조사 이후 급격히 하락한 후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어 가정경제에 대한 태국 대중들의 낙관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2.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와 정당 관련 인식

대중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표 9>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9>에서 네 차례 조사의 평균 신뢰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군부(1위) → 사법부/지방정부(공동 2위) → TV(4위) → 공무원(5위) → 총리(6위) → 선거관리위원회(7위) → 중앙정부(8위) → 경찰(9위) → 의회(10위) → 신문(11위) → 시민단체(12위) → 정당(13위) 순이다. 13개의 정치제도 관련 기관 중에서 신뢰도 1위를 차지한 제도가 군부라는 점은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군부는 3차 조사에서만 2위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세 차례 조사에서는 계속 1위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신뢰는 매우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태국정치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과 연관성이 있다<sup>9)</sup>. 1932년 군부 쿠데타로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이후 1992년 태국의 민주화 이행이 본격화되기까지 60년 중 대부분의 기간 군부가 주도하는 권위주의체제였다. 따라서 태국 대중들에게 군부는 입헌군주제를 시작한 주체이자 근대화 주도 세력으로 각인되어 있으며, 특히 1950년대부터는 푸미폰 국왕과 군부 사이의 긴

9) 태국정치에서 군부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경교(2012) II장 군부를 참조

밀한 네트워크가 태국정치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의 네트워크였다 (서경교 2017: 64-68).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군부가 태국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사법부와 지방정부도 군부 다음으로 대중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정치제도는 정당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보듯이 정당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의 평균은 44.1%로 13위이며, 51.7 → 51.0 → 35.2 → 38.6%로 1, 2차에서는 50.0% 이상이 신뢰한다고 하였던 반면, 3차와 4차에서는 30%대의 신뢰도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정당보다는 나으나 의회에 대한 대중적 신뢰도 평균도 55.8%로 10위인 하위권이다.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정당과 의회가 더욱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태국에서 최하위권의 낮은 신뢰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다.

<표 9>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 (%)

구분	1차 조사 (2001년)	2차 조사 (2006년)	3차 조사 (2010년)	4차 조사 (2014년)	평균
군부	<b>80.0(1)</b>	<b>74.6(1)</b>	<b>69.7(2)</b>	<b>86.0(1)</b>	<b>77.6(1)</b>
TV	79.5(2)	67.0(5)	58.6(7)	63.6(4)	67.2(4)
사법부	73.4(3)	69.3(3)	63.1(4)	70.3(2)	69.0(2)
선거관리위원회	70.0(4)	56.5(10)	61.6(6)	61.0(6)	62.3(7)
공무원	69.3(5)	68.7(4)	66.6(3)	59.1(8)	65.9(5)
중앙정부	69.1(6)	59.9(8)	54.8(9)	60.6(7)	61.1(8)
지방정부	68.1(7)	71.9(2)	73.5(1)	62.3(5)	69.0(2)
의회	<b>60.6(8)</b>	<b>58.9(9)</b>	<b>48.8(10)</b>	<b>54.7(10)</b>	<b>55.8(10)</b>
시민단체	59.7(9)	41.3(13)	43.9(12)	48.8(12)	48.4(12)
경찰	58.6(10)	63.4(7)	57.1(8)	50.4(11)	57.4(9)
신문	55.7(11)	52.1(11)	47.0(11)	55.2(9)	52.5(11)
정당	<b>51.7(12)</b>	<b>51.0(12)</b>	<b>35.2(13)</b>	<b>38.6(13)</b>	<b>44.1(13)</b>
총리	데이터 없음.	64.9(6)	61.9(5)	69.5(3)	65.4(6)

\* 출처: ABS 1차 (7-18번 문항), 2-4차(7-19번 문항) 자료.

\* 질문: “다음 각 기관을(총리, 사법부, 중앙정부, 정당, 국회, 공무원, 군대, 경찰, 지방 정부, 신문, TV,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어서 정치체제에 관한 대중적 인식 중 정당 관련 더욱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조사가 있기 직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였는지와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은 어느 정당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 10>에 나타난 네 번의 총선(2001, 2005, 2007, 2011년) 결과의 의석점유율을 살펴 보겠다. 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는 탁신헌의 타이락타이당이 각각 의석의 49.6%와 75.4%를 차지하였고, 민주당이 그 뒤를 이어 25.6%와 19.2%의 의석을 차지하였지만 크게 뒤지는 점유율이었다. 2007년과 2011년 총선에서도 당명은 바뀌었지만 친탁신헌계 정당인 국민의힘당(48.5%)과 푸어타이당(53.0%)이 제1당이었고, 민주당(34.4%, 31.8%)이 제2당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탁신헌계 정당이 네 차례 총선 모두에서 제1당의 위치를 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0>의 응답자들이 총선에서 지지한 정당과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에 대한 답변 결과<sup>10)</sup>를 살펴보면, 1차와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지지정당의 순위와 의석점유율 순위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두 차례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타이락타이당을 지지했다는 응답자와 타이락타이당에 가장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1위였다. 그러나 3차와 4차 조사에서는 실제로 의석점유율 1위를 차지한 정당과 응답자들의 지지정당 및 정당친밀감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10) <표 10>의 정당 친밀감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 1위를 차지한 비율은 “어떤 정당에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었다. 1차(58.6%), 2차(72%), 3차(62.5%), 4차(70.8%)의 높은 비율이었다. 따라서 정당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월등히 많았으며, 표에 나타난 1, 2위 정당은 친밀한 정당명을 밝힌 응답 중의 비율이다.

<표 10> 정당 지지와 정당친밀감 (%)

ABS 설문조사	총선 일정	의석점유율** (1, 2위)	응답자 지지정당 (1, 2위)	정당친밀감 (1, 2위)
1차 (2001년 10-11월)	2001.01.06	타이락타이당 (49.6%)	타이락타이당 (61.5%)	타이락타이당 (53.8%)
		민주당 (25.6%)	민주당 (24.7%)	민주당 (30.3%)
2차 (2006년 4-9월)	2005.02.06	타이락타이당 (75.4%)	타이락타이당 <sup>11)</sup> (48.2%)	타이락타이당 (18.5%)
		민주당 (19.2%)		민주당 (8.0%)
3차 (2010년 8-12월)	2007.12.23	국민의힘당 (48.5%)	민주당 (32.3%)	민주당 (20.5%)
		민주당 (34.4%)	타이락타이당 (13.4%)	푸어타이당 (12.5%)
4차 (2014년 8-12월)	2011.07.03	푸어타이당 (53.0%)	민주당 (17.8%)	민주당 (14.7%)
		민주당 (31.8%)	푸어타이당 (15.5%)	푸어타이당 (12.1%)

\*출처: ABS 1차(28, 62번 문항), 2차(39, 54번 문항), 3차(33, 47번 문항), 4차(34, 53번 문항) 자료.

\*질문: 응답자 지지정당: “지난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셨습니다?”

정당친밀감: “자신과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의석점유율: Pongsudhirak(2012)에서 참고한 자료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친탁션계 정당을 지지하였고 친밀감을 느낌에도 응답자들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려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고, 둘째는 ABS 조사가 총선이 실시된 후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의 제1당이 더 이상 집권당이 아닌 상황에서 나온 응답이기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석점유율 1위는 지속적으로 친탁션

11)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지지정당은 타이락타이당(TRT)만 정확한 정당명이 확인되었다. 다른 답변들은 투표하지 않음(20.8%), 답변 거부(13.9%), 다른 정당(1.9%) 순이었다.

계 정당(국민의힘당, 푸어타이당)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 및 정당친밀감 1위는 민주당이었다는 점이다. 2위를 차지한 정당은 친탁썬계 정당인 타이락타이당과 푸어타이당으로 나타났지만 3차 조사가 시행된 2010년에는 타이락타이당이 해체되고 없던 시기였음에도 2위를 차지한 것은 국민의힘당을 타이락타이당과 같은 정당으로 응답자들의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표 10>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응답자 지지정당과 정당친밀감에서 1위를 기록한 정당의 경우 네 차례의 결과 모두에서 정당친밀감은 정당지지 비율보다 낮았다. 1차에서 타이락타이당을 지지한 응답자(61.5%)와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53.8%) 사이에는 7.7%의 차이가 있었고, 2차에서는 29.7%의 차이가 났다. 3차와 4차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32.3%, 17.8%)보다 친밀감을 느낀 비율(20.5%, 14.7%)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총선에서 지지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의 <표 9>에서 확인하였듯이 정당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 10>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네 번의 총선에서 탁썬계 정당들은 매번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중들의 지지에 근거한 결과이다. 탁썬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6년 9월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2007년 총선 이후에도 사법부 판결을 통한 친탁썬계 정당의 해산 및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 있었지만 유권자 수준에서 지속되는 지지를 막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 <표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친밀감은 2006년 쿠데타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실제 총선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정당명에서도 응답자들의 혼돈이 나타나 있다.

#### IV. 분석과 함의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근거하여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의 특징과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는 괴리가 크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권력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등의 가치보다 ‘정부의 빈부격차 해소’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의 고용기회 보장’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은 정치’ 등으로 경제영역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탁싨 2기 정부나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빠라웃 군사정부 모두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두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3%와 2.5%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쿠데타로 출범한 군사정부도 민주적인 정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로 정치참여 관련하여 태국의 총선 투표율은 평균 90.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평균 70.8%로 투표율보다 20.0% 정도 낮았고,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도 유사하거나 좀 더 낮은 수준이었다. 후보나 정당지지 활동 등 개인차원의 정치활동-특히 정당활동-참여는 매우 저조한 반면에 국가에 대한 절대적 지지 비율은 평균 86.8%로 높아 대중의 인식 속에 국가중심주의적 성향을 읽을 수 있었다. 유권자 대중들의 참여와 활동이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중들의 정치참여 실태는 태국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현실이다.

네 번째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선호도, 정통성에 있어서는 대중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민주주의가 태

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중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태국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중도 현저히 줄었다. 더욱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경제발전을 택하겠다는 비율(48.3%)이 민주주의를 택하겠다는 응답(20.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는 점도 대중들 인식 속의 민주주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누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민주주의 확립보다 경제발전에 성과를 낼 때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치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부분이 바로 탁싨 재임 시절 대중적 인기는 물론이고 쿠데타로 탁싨이 축출된 이후에도 탁싨계 정당이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대중적 지지의 실체라고 판단된다. 이어서 민주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와 견제를 무시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결정, 일당체제, 군부통치 지지 등에 동의하는 비율도 25% 이상으로 작지 않은 비율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평균 비율이 50.4%로 응답자의 반이 넘었다. 이러한 대중적 인식은 법치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에 태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정치체제와 정부에 관한 대중적 인식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대중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선거에서 선출된 민간정부에서나 쿠데타 후에 등장한 군사정부에서나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정부 만족도에 있어서는 민간정부보다 군사정부에서 10.0% 이상 상승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의미는 군부의 정치개입을 금기시하거나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잘못된 정부형태로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군사정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3장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태국 대중들은 뿌라웃 군사정부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은 미약하였다. 또한 대중들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것은 경제관리와 경제발전이었다. 이는 앞선 논의에서 다루었던 민주주의 필수요소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도 일맥상 통하는 응답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응답에서는 탁싨 집권기가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가져온 정부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즉 탁싨 집권기간(2001-2006)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상당히 좋아졌다고 대중들은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가 친탁싨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된다. 즉 대중들에게 탁싨 집권기는 경제가 성장한 기간이었고, 이는 대중들의 인식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정부의 집권기였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이다.

정치제도와 정당에 관한 논의에서 발견한 평가는 13개의 정치제도 중 대중에게 신뢰받는 제도로서는 군부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매우 독특한 태국적 현상이었다. 반대로 태국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할 정당은 가장 낮은 신뢰도 점수로 나타났고, 의회의 신뢰도도 13개 기관 중 평균 10위의 하위권이었다. 이는 태국에서 정당과 의회가 주도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에 대한 불신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탁싨의 타이락타이당이였다. 타이락타이당은 결성된 후 첫 선거였던 2001년 총선에서 49.6%, 2005년 총선에서는 무려 75.4%의 의석점유율을 보여 현재까지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정당이다. 2005년의 타이락타이당과 탁싨에 대한 경이로울 만큼 놀라운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는 탁썬 1기 정부(2001-2005년)의 경제적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 대중적 지지를 받던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 대중들의 선택이 아닌 군부 쿠데타로 권력에서 축출된 것에 대한 유권자 대중의 숨겨진 반발심<sup>12)</sup>이 태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중 인식을 기초로 한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서두에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지만, 정치엘리트와 대중들의 정치적 인식과 가치관은 이러한 제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권력의 분립과 견제, 법치주의 등이 태국 대중들에서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대중들에게 민주주의는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주적인 가치며, 권력 견제나 법치주의 등은 필요에 따라 희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인식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정권이나 강력한 권위주의체제라도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면 용인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탁썬계를 계속 지지하는 이유 역시 대중들의 민주주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즉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탁썬 집권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호황을 누렸던 시기이고 따라서 가장 민주적인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12) 물론 탁썬이 축출된 후 친탁썬 세력과 반탁썬 세력 사이에 도로와 공공건물을 점거하는 폭력적 시위 등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다수의 침묵하였던 탁썬 지지자들은 총선 때 탁썬계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탁썬 지지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분석된다.

욱이 탁싨은 쿠데타로 인하여 유권자인 대중의 동의 없이 권좌에서 제거되었다. 또한 남겨진 타이락타이당은 반탁싨 세력들에 의해 해체된 후 당명을 바꾸어 다시 구성되고 또 해체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지켜본 대중들이 반탁싨 세력의 부당한 조치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도 탁싨계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대중들은 탁싨 및 친탁싨계를 축출한 2006년과 2014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을까?<sup>13)</sup> 가장 큰 이유는 이 쿠데타들이 당시 푸미폰 국왕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군부가 어느 정치집단보다 대중들의 신뢰가 높은 동시에 정치 경험이 가장 풍부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즉 태국에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군부정권은 매우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성장이나 정치사회적 안정에 대해서는 군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는 그 기초 및 출발점이나 전개 과정,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매우 다르다. 특히 유권자인 대중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은 자유민주주의적 핵심 가치와는 매우 큰 괴리가 있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태국적 특징은 군부가 오랫동안 정치에 개입해 왔으며 아울러 대중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일부 반대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군부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과 총선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한 권력으로 포장하였기에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당한 권력

13) 물론 동북부 지역 지지자를 중심으로 일부 강경한 친탁싨 세력들은 쿠데타에 저항하는 폭력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지만, 쿠데타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라는 주장을 펼 근거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태국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의 본질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군부의 쿠데타와 정치개입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군사정부도 대중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한 민주적인 정부로 인정받는 대중적 인식도 실재한다. 그 결과 헌법 개정 및 총선 실시 등을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외형은 갖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가 연장되고 있는 것이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위기상황의 현주소로 파악된다. 그런 측면에서 태국은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친 현 상황에서 뿌라웃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참고문헌〉

- 고영준. 2013.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치적 선호 연구: 태국 사례.” 『글로벌정치연구』 6(2): 147-174.
- 서경교. 2007. “민주화의 위기: 태국과 필리핀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11(3): 261-288.
- \_\_\_\_\_. 2012. “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주요 정치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18(2): 1-35.
- \_\_\_\_\_. 2013.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인식: 태국 사례.” 『한국태국학회논총』 19(2): 145-177.
- \_\_\_\_\_. 2014a. “대중들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8(2): 55-88.
- \_\_\_\_\_. 2014b.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태국과 필리핀의 비교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20(2): 376-406.
- \_\_\_\_\_. 2015. “태국 민주주의와 군부 쿠데타: 2006년과 2014년 쿠데타를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2(1): 269-299.
- \_\_\_\_\_. 2016. “동남아시아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국제지역연구』 20(1): 145-172.
- \_\_\_\_\_. 2017. “푸미폰 국왕과 태국 정치 70년(1946-2016)의 부침: 국왕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3(2): 57-92.
- 이동윤. 2005. “태국 선거과정의 변화와 지속성: 2005년 하원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5(2): 259-299.
- \_\_\_\_\_. 2010. “태국의 정치개혁 확산과 내재화의 실패: 1997년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1): 397-420.
- \_\_\_\_\_. 2014. “태국의 군부쿠데타와 민주주의로의 여정: 2006년 군부쿠데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0(2): 331

-367.

- 이병도. 2009. “태국의 최근 정치적 갈등: 그 평가와 전망.” 『동남아 연구』 19(3): 293-325.
- Albritton, Robert A. and Thawilwadee Bureekul. 2008. “Developing Democracy under a New Constitution in Thailand.” Yun-Ham Chu, Larry Diamond, Andrew J. Nathan, Doh Chull Shin (eds.). *How East Asians View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14-138.
- Chang, Yu-tzung, Yun-han Chu and Chong-Min Park. 2008. “Authoritarian Nostalgia in Asia.”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How People View Democracy*.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74-88.
- Freedman, Amy L. 2007. “Consolidation or Withering Away of Democracy? Political Changes in Thailand and Indonesia.” *Asian Affairs* 33(4): 196-216.
- Huang, Min-Hua, Yu-Tzung Chang and Yun-Han Chu. 2013. “Popular Understandings of Democracy and Regime Legitimacy: Comparing India and East Asia.” *Asian Barometer Working Paper* No. 100: 1-22.
- Merieau, E. 2019. “Thailand in 2018: Military Dictatorship under Royal Command.” *Southeast Asia Affairs* Volume 2019: 327-340.
- Ockey, James. 2007. “Thailand in 2006: Retreat to Military Rule.” *Asian Survey* 47(1): 133-140.
- Plano, Jack C., Milton Greenberg, Roy Olton, and Robert E. Riggs. 1973. *Political Science Dictionary*. Hinsdale, IL: The Dryden Press.

- Pongsudhirak, Thitinan. 2012. "Thailand's Uneasy Passage." *Journal of Democracy* 23(2): 47-61.
- Prasirtsuk, Kittti. 2015. "Thailand in 2014: Another Coup, a Different Coup?" *Asian Survey* 55(1): 200-206.
- Roberts, Geoffrey K. 1971. *A Dictionary of Political Analysis*. London: Longman.
- Sartori, Giovanni. 1987.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Catham: Catham House Publishers, Inc.
- Sawasdee, SN. 2020. "Electoral Integrity and the Repercussions of Institutional Manipulations: the 2019 General Election in Thailand."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5(1): 52-68.
- Shin, Doh C. 2012a. "Is Democracy Emerging as a Universal Value? A Contrarian Perspective." *Asian Barometer Working Paper* No. 68.
- \_\_\_\_\_. 2012b. *Confucianism and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연합뉴스. 2020. "태국서 대규모 반정부집회...금기 깨고 '군주제 개혁'."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9035751084>  
(검색일: 2020.09.19.)

[www.asianbarometer.org](http://www.asianbarometer.org) (Asian Barometer Survey)

(2020.10.11. 투고, 2020.10.23. 심사, 2020.11.16. 게재확정)

<Abstract>

## Nature and Crisis of Thai Democracy: Analysis through Popular Understandings

SEO KyoungKy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H YoungJoon

(The University of Sydne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nature of Thai democracy and its crisis, based on public opinion data of Asian Barometer Surveys I, II, III and IV. Some meaningfu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ublic perception of democracy in Thailand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in liberal democracy. For Thais, the 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Second,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whether civilian or military, is considered democratic if it brings economic development, reduce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provides good public services to its people. In effect, more than 65% of the respondents consider the military junta a democratic regime. Third, among societal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public trust in the military is the highest. A large proportion of the public also seems to expect the junta to improve economic conditions. Fourth, the current crisis originated from the gap between externally democratic procedures and internally authoritarian rules for a long time in Thailand. In this regard,

forwarding steps of the Prayut's government will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future of Thai democracy.

**Key Words:** Thailand, Democracy, Political Crisis, Popular Understandings, Asian Barometer Survey (ABS)

